

님이 주신 예수성덕에 관한 가르침

1



거룩한 사랑은 성화의 계단의
 벽돌들을 붙이는 회반죽이다

목적증인 모린 스위니 카일에게 주신 메시지 MSHL

예수^{님이 주신}성^덕에 관한 가르침

1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 카일에게 주신 메시지

이 책에 실린 메시지들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출판한 “Lessons on the Virtues from Jesus” 를 번역 제작한 것으로, 모든 메시지들은 www.HolyLove.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손이 모든 덕의 뿌리라면, 거룩한 사랑은 이것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이 뿌리와 흙 없이는 모든 덕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성해지지 못한다.”

“모든 덕은 자유의지에 의해 실천되며, 끈기있는 실천을 통해 점차 영혼 안으로 스며든다.”

“가장 먼저, 영혼은 거룩한 사랑 즉, 흙을 선택해야 한다.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검손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검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검손은 비난을 오히려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은총과 존경,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검손은 지극히 하찮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노고에 대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검손은 숨기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자신이 검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검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바로로 성인은 1 코린 13장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해 서술했는데, 이것은 또한 거룩한 검손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1998년11월 2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애야, 오늘은 내 신성한 성심 안으로 들어오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너를 돕기 위해 왔다. 너의 여정은 하나된 성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된 성심에서 끝난다. 너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이 계시의 충만함을 깨달아라.”

“내 신성한 성심의 거처로 들어오는 첫째 단계도 거룩한 사랑이요, 마지막 단계도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은 내 어머니의 성심이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너희 예수의 신성한 성심과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되었다. 이 두 성심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 내 어머니의 성심인 거룩한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내 신성한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너에게 말한다. 내 성심은 모든 덕의 절정이다. 그러니 너의 의지로 성덕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하느

님의 신성한 뜻에 협력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내 신성한 성심 안에 있고 하나된 성심 안에서 구체화되어 참으로 군림하고 있다.”

“네가 신학자라서 너에게 온 것도 아니고 너에게 모든 분야의 신학 지식이 부족하다는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너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검증될 것이다.”

“계속하겠다. 내 성심이 나의 복되신 어머니의 성심과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공동 구속자’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애야, 내가 말하는 것이 선포되기까지에는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므로, 너는 내게 너의 평판을 내맡겨야 한다.”

“하나된 성심 안에서 어머니와 내가 하나 되었기에, 내 어머니께서는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인류의 죄를 떠맡는 동안 영적인 버림받음과 고독함을 느끼셨고, 나와 이별하고 나를 잃는다는 것 때문에 감성적인 슬픔에 싸여 계셨지만, 은총을 통해 모든 것을 인내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된 성심이 역경에 처한 너희의 피난처임을 선포한다.”

“내가 너에게 청하는 모든 것에 대해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원 불변의 피난처인 우리의 하나된 성심을 신뢰하여라. 나는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여정을 통해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 여정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1999년 1월 3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팔에 안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러 왔다. 내 사랑을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부여준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다. 눈이 멀어 있던 북부 지역이 생각나느냐? 그때 넌 그 위를 걸었지만 눈 속에 발이 빠지지 않는 않았지, 기억나느냐?”

“예.”(모린)

“사랑에 내맡기지 않는 영혼도 이와 같다. 영혼이 자신의 의지로 벽을 둘러치고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사랑이니, 사랑에 내맡겼을 때의 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겠다.”

“내맡김을 통해서 너희가 내적·외적인 모든 것을 내 어머니께 봉헌하면, 어머니께서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시어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거룩한 소유’라고 부른다. 그러니 너희는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을 내 어머니께 맡겨드려야 한다:”

“너희가 평판을 내맡기면 사탄이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너희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 (음... 사람들의 의견,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장 소중한 재산처럼 여기지만, 이것을 내세로 가져갈 수는 없다.)”

“이 선교회와 선교사업을 내맡겨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보호해주시고 베풀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외모를 내맡겨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너희 건강과 복지를 내맡겨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너희가 받은 모든 영적 은사와 세상 소유물을 내맡겨 내 것이 되게 하여라.”

“이제 바오로 성인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라.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너희가 비운 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얘야, 이것이 신성한 사랑이 영혼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방법이다. 내 어머니께서 네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나는 돌아가니,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잘 소화해서 전파하여라.”(1999년 1월 11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내 성심의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로지 거룩한 사랑뿐이다. 너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러 왔다.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

“오늘의 가르침은 사랑에 대한 것이다. 모든 성덕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성덕을 포괄한다. 이것은 모든 계명의 구현이고 거룩함의 핵심이다. 만일 거룩한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을 밝혀주고 악을 드러내는 햇빛과 같으리라. 만일 거룩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포옹과 같으리라. 만일 거룩한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것이리라.”

“거룩한 사랑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총합이며, 구원에의 내맡김이다.”

“내 아버지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사랑해야 하는 방법이다. 너희의 지를 내맡기지 않고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의 내맡김은 정말 감미롭다! 너무나 감미롭다! 나는 오직 현 순간에서, 그리고 언제나 현 순간에서, 너희의 이 내맡김을 찾는다. 이것이 신성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1999년 1월 12일)

마은 빛(천사들)을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왔다. 애야, 공부할 준비가 되었느냐?”

“예.”(모린)

“겸손과 사랑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오늘은 거룩한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겸손이나 사랑을 벗어나서는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왕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겸손한 영혼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내맡기며, 나는 아버지께 내맡긴다. 겸손한 영혼은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복지를 내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시를 쉽게 받아들인다.”

“겸손한 영혼은 영적인 삶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나에게 많은 영혼을 이끌어 오는데 이는 그가 내키지 않는 일도 불평없이 숨어서 잘 해내기 때문이다. 참으로 겸손한 이들은 칭찬이나 중요한 직위나 권력을 멀리 한다. 겸손한 이들은

모욕 받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자신의 평판을 내맡긴다. 겸손한 이는 자신의 의견, 영성, 혹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질(資質)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의 적인 교만을 조심하는 것이다. 사탄으로 하여금 ‘나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교만이였다. 교만 대신 마음의 겸손을 실천하여라. 너희가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돕겠다.”

“내 성심의 왕국으로 너희를 초대한다.”(1999년 1월 13일)

“오 늘은 온유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얘야, 겸손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온유함은 겸손의 자매덕이다. 둘 중 하나 없이는 거의 존재할 수 없든지 불완전하게 되는 덕들이다.”

“온유함은 영혼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사랑은 잘 참으며 친절하다. 사랑은 분노에 더디다. 이 모든 것이 다 온유함의 결실이다. 겸손한 영혼은 온유함의 덕을 꽃 피우게 만든다. 왜냐하면 겸손을 통하여 영혼은 다른 이들을 첫 자리에 놓고 자신을 맨 나중 자리에 놓기 때문이다.”

“온유함은 화난 얼굴 앞에서 온순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다. 다른 모든 성덕처럼 온유함도 표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온유한 사람은 친구든 원수든 모든 이를 똑같이 대한다.”

“온유한 사람은 지상에 살면서도 마음은 늘 천국을 향한다. 그러기에 그는 쉽게 완덕으로 나아간다. 온유함을 실천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의 노력을 나의 은총으로 꾸미겠다.” (1999년 1월 15일)

성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 사람이 된 예수다. 성덕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도록 도와주러 왔다. 너희는 덕

을 통해서 티 없는 성심인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덕을 더욱더 증진시킴으로써 마침내 신성한 사랑인 내 성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성덕을 이해하면 너희가 어느 부분에서 덕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덕이 있는 영혼은 늘 평화롭다. 사탄이 영혼을 공격해도 그는 즉시 평화를 되찾곤 한다. 덕이 높은 영혼은 자신을 잘 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한다.”

“성덕은 거룩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실로 거룩함에서 진보하고 있는 영혼은 남들이 자신에게 협조하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이를 사랑으로 섬긴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영성에 대해 자랑하거나, 남이 알아주기를 열망하지 않는다. 그대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덕을 증진시키는 일에만 집중한다.”

“나는 내게 청하는 이들을 돕는다. 나는 내 신성한 사랑 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한다. 나에게로 오너라.”(1999년 1월 16일)

“**너**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말쑥이 사람이 된 내가 아니냐! 내 어머니의 성심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만드신다. 어머니께서는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모든 결점을 정화시키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리하여 영혼이 내 신성한 성심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신성한 사랑 자체인 내 성심의 불꽃은 영혼을 거룩함으로 더 깊이 데려간다.”

“너희는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는 합당한 이가 되어 천국을 얻게 되며, 신성한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는 성화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러 위대한 공로를 쌓고 심지어 천국에서 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내 신성한 사랑의 불꽃에 내맡겨라. 너희의 내맡김이 덕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겉치레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내 신성한 사랑만을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을 없애주고, 너희를 나의 것, 나의 사랑, 나의 사도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의 가장 미소한 노력도 내

가 축복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미래 세대까지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 안에 머물러라.”(1999년 1월 27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세상에 빛을 추가 위하여 왔다. 내 성심은 신성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는 불덩어리다. 이것은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다. 내 성심은 영혼들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갈증을 겪고 있는데, 이 목마름은 오직 세상의 회심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 신성한 사랑으로 들어오는 길은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은 지극히 평범한 순간조차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 거룩한 사랑은 내 성심으로 가는 길과 문을 열어준다. 이것은 모든 덕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의 모상임을 이해하여라. 아, 이 신비와 계시가 얼마나 신성한가! 오, 영혼들이 이 길을 이해하고 내맡긴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대, 도전과 승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자연의 강력한 힘이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된 성심이 승리하여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석의 강한 힘에 끌리듯 내 양떼가 하나된 성심의 신비 속으로 들어와 하나로 일치할 것이고, 신앙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이 세대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곳곳하게 견뎌라.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길로 향하는 강하고 힘이 넘치는 열정적인 사도가 되라고 초대한다. 거룩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은 너무나 일치되어 있기에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일부만 믿거나 가끔씩 믿다 말다 할 수는 없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믿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올 왕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1999년 1월 28일)

신성한 예수 성심이 나타났고, 그분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것을 받아 적어라.”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래,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인내는 거룩한 사랑 즉, 거룩한 겸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어떤 덕보다도 더욱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덕이다. 인내는 사랑과 겸손의 열매로서, 영혼이 십자가와 일치하도록 해준다. 인내가 부족한 곳에서 너희는 사랑과 겸손의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

“거룩한 사랑을 맛있는 국에 비유한다면, 인내는 사랑과 겸손이라는 재료로 우려낸 국물과 같다.”

“인내는 바닷가에 지은 모래성과 같은 것으로서, 여기에 사용하는 모래는 사랑과 겸손이다. 이 성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 의지로 인내하겠다고 마음 먹어라. 이 덕을 닦으려는 노력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내 은총과 축복이 너희 노력을 도울 것이다. 이 덕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이 거룩함의 반영이다.”(1999년 2월 3일)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파란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눈부신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형제자매들아, 나는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는 너희를 신성한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데려오고자 한다. 너희 각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덕 안으로 깊이 들어오너라. 각 성덕은 서로 엮여 내 성심을 덮을 태피스트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되신 성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1999년 2월 6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며 오셨습니다.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잠시 묵상해 보아라. 그 배는 바로 너희의 영혼이다. 그 배가 찾는 안전한 항구는 바로 하나된 성심이며, 이곳으로 배를 움직여 주는 해류는 거룩한 신뢰다. 만일 배가 이 흐름(신뢰)을 거슬러 항해를 한다면 아주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항구(하나된 성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하느님보다)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더 믿을수록 그만큼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된 성심과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된 성심의 안배와 보호에 내맡겨라. 이것은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1999년 2월 11일)

“아 드디어 왔구나!” (눈 때문에 늦어짐.) “나는 말씀이 사람이 된 너희의 구세주 예수다. 나는 신뢰에 대해 말하고자 왔다.”

“내가 말해왔듯이, 신성한 사랑 - 내 신성한 성심 - 으로 인도하는 길은 거룩한 사랑이다. 너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내 성심의 문으로 다가올 수 없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신뢰하며 내맡기는 것이다. 네가 내 안배에 내맡길수록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 신뢰는 내 안배의 은총을 여는 열쇠다. 영혼에게 평화를 맛보게 해주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확신이다.”

“모든 여정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바로 신뢰하며 내맡기는 길을 막는다.”

“어쩌면 너는 자기 사랑을 통하여 너 자신만을 신뢰한다. 이 결점의 열매는 두려움이다. 너는 네 주위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한다. 어쩌면 모든 대화를 지배하려 하고 네 의견을 버리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을 내게 내맡기면, 나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돌볼 것이다.”

“어쩌면 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신뢰하거나, 어떤 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만 기도할지도 모른다. 언제나 나를 신뢰하여라. 내 안배는 완전하다.”

“네가 어린아이 같다면, 너는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그의 부모를 온전히 신뢰한다. 것처럼 나를 신뢰하여라.”

“내 성심의 은총이 아름다운 꽃다발이라면, 신뢰는 그 꽃향기를 너에게 날려 보내는 잔잔한 바람과도 같다.”

“신뢰는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다. 네가 높이 오를수록 천국과 더 가까워진다.”

“네가 거룩함을 원한다면, 시험중에도 나를 반드시 신뢰해야만 한다.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 삶 안에서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이끌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떠나셨습니다. (1999년 2월 13일)

하느님의 안배를 신뢰함	신뢰하지 못함
성덕의 삶이 급속도로 성장함	-거룩한 사랑의 결점들 -거룩한 겸손의 결점들
하느님을 사랑하며 만유 위에 그분을 신뢰함	-지나친 자기 사랑 -두려움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움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뜻 안에서 살아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함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캐고자 함

신뢰를 구하는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의 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의 의지를 당신께 내맡기오니,
이 내맡김으로 주님의 은총이 저의 미래를 다스리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유익과 구원만을 원하심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미래 계획을 기다리며
현 순간을 살기로 결심하나이다.
저를 위한 당신의 계획과 신성한 뜻을 신뢰하나이다. 아멘.”

1999년 2월 26일

“**신**뢰하는 영혼에게는 나의 은총과 안배를 흘러 넘치도록 한없이 부어준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신뢰의 반대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바란다.”

“이것은 혼란과 믿음의 부족이라는 열매를 낳는 사탄의 작전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신뢰로써 그것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감싸줄 것이다. 나 없이는 너희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하도록 충실한 남은 신자들을 선택했다. 남은 신자들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와 내 아버지의 위대하고도 강력하신 뜻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조만간 신뢰를 구하는 기도문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축복한다.”(1999년 2월 18일)

“**신**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자 왔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서 다른 이들을 신뢰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성심은 나를 신뢰하는 이들이 쉬는 곳이다. 그러기에 나를 신뢰하는 이들은 그들의 뜻을 내맡길 수 있다. 놀랐느냐?”

“나를 신뢰하는 이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자신의 뜻이 형성되도록 한다. 신뢰가 커질수록 내맡김도 커지고 사랑도 커진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것을 전파하라.”(1999년 2월 1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다. 영혼이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이 당연한 기본 원리 위에 용서가 이루어진다.”

“용서못함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과 이웃보다는 자신에게 두도록 한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에 모든 용서못함의 근원이 된다. 그러기에 과거의 상처들을 나에게 내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며,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마지막 자리에 놓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을 연민으로 대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있어 자신이 받은 모욕과 상처를 사랑과 용서로 돌려주기에는 그들이 지닌 사랑과 겸손에서 볼 때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한다. 내가 그렇게 명하였다. 용서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며 또한 너희가 거룩함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용서못함은 너희 마음의 중심이 너희 자신 즉, 너희의 교만과 상처에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 준다. ‘왜 나에게?’ 라고 말하지 마라. ‘이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나는 불행하다.’ 등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한 생각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찬 것이고, 용서못함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이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내 성심의 축복을 너희 삶 안에 받아들여라.”(1999년 2월 20일)

“나 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애야, 오늘 나는 완덕으로 나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 데 비유해서 말하겠다. 집은 여러가지 자재로 지어진다. 영적인 삶을 이루는 자재는 바로 덕행이다. 자재는 집 짓는 사람에 의해 집을 짓는 데 사용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집 짓는 사람은 바로 너희의 자유의지다. 완성된 건물이 보기에 아름답듯이 완덕을 통해 나와 일치하고자 하는 영혼 또한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 이 집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는 덕이 풍부한 영혼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나는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영혼을 사용한다.”(1999년 3월 8일)

각주: 이 발현이 시작되고 중간쯤 되었을 때, 제(모린) 개가 새 현관 매트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였고 내가 야단을 치면서 못하게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개가 있는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성심에서 빛이 나와 개를

비추자 개는 하던 짓을 멈추고 매트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내 귀한 성혈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 하라는 두 개의 위대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알려주겠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너는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성삼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 천국이고,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인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사랑이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기예,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 자체가 어지러운 이 시대의 피난처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전파해줄 것을 청한다.”(1999년 3월 11일)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층계를 환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와 이 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왔다. 이 층계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함의 층계다. 각 계단은 덕을 상징하며, 벽들을 이어붙이는 회반죽은 모든 성덕을 한데 묶는 거룩한 사랑을 상징한다. 첫 계단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오직 진실한 노력과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 없이는 다른 계단들(다른 여러 가지 덕들)로 올라갈 수 없다. 영혼은 진실하게 그 계단을 밟아야만 한다. 거짓으로 하는 척 해서는 이 계단에 올라설 수 없다.”

“이 층계 옆에 붙어 있는 손잡이 난간을 보아라. 영혼은 계단을 오를 때 이것을 잡고 올라간다. 너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단순함이다. 단순함을 통하여 영혼은 매 현 순간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네가 층계를 오르는 것을 돕도록 내가 보내준 천사들을 보아라. (천사들이 그 층계 주위에 있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계단 꼭대기에 있는 문은 내 성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이것은 신성한 사랑의 문이다.”

“이것을 전파하려는 너의 노력을 축복한다.”(1999년 3월 24일)

예수님께서 상처로부터 빛을 내뿜으며 오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나는 ‘단순함’이라는 덕에 대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다. 영혼에게 단순함이란 바다에 떠 있는 배의 나침반과 같다. 단순함은 영혼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며, 영혼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을 향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단순한 영혼은 이중적이지 않고 - 교활하지 않으며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숨은 의도도 품는 법이 없다. 그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애쓴다.”

“단순한 영혼은 태양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고 태양을 향해 활짝 피어나는 작은 꽃송이와 같다.”

“영혼이 사리사욕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더 쉽게 이중적인 사람이 된다. 영혼은 평판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영혼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타협하기에 나의 단순한 부름을 크게 타협한다. 나 또한 각 영혼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직 그의 마음만을 본다. 영혼이 단순하고 일편단심일수록 나는 그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덕은 다른 덕보다 한층 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에 좌우된다. 이것은 마치 거룩하고 겸손한 바구니에 과일을 집어넣는 것과도 같다. 이 바구니가 클수록 더 많은 과일을 담을 수가 있다.”

“이것을 널리 전하여라.”(1999년 3월 27일)

수 많은 빛이 흰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주변과 그분 성심 주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성심의 내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신성한 사랑 안에 사는 영혼은 내가 그를 늘 사랑해왔고 그를 늘 사랑할 것을 알고 있다. 나에게 내말길 때, 모든 십자가가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그는 안다. 바로 이 내말길 속에 영혼의 모든 공로가 들어 있다. 깊이 내말길수록 공로도 커진다. 내 신성한 사랑 안에서 나와 일치하는 영혼은 거룩함과 구원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영혼이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자신의 자유의지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온다.”

“내 성심의 깊은 곳은 완전한 평화다. 너희 영혼이 평온할 때 너희는 이 평화를 느낀 적이 있다: 깊은 밤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올 때, 봄날 아침 새들의 지저귀는 노랫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봄날 밤 귀뚜라미의 합창 소리를 들었을 때 너희가 느꼈던 바로 그런 평화다. 이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일순간 이나마 체험하는 것이고 내 신성한 사랑과 일치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께서는 천국의 달콤한 미풍으로, 장미꽃 향기로 너희에게 오신다. 어머니는 장미향이 너희를 장미꽃으로 이끌듯 성덕으로 너희를 더욱 깊이 이끄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은총과 너희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라신다.”

“이와 반대로, 너희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기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성공이나 안락함 그리고 위안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자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언제나 은총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지만 세상의 눈에는 어려운 일이다.” (1999년 3월 30일)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왔구나! 사람이 된 너희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덕이 깊고 거룩함으로 가득찬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방관자들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지식인들 눈에는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왕좌왕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생활을 잠시 생각해 보아라. 나는 용서하는 사랑을 가르쳤다. 땀을 맞으면 다른 땀도 내어주라고 가르쳤다.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가르쳤다. 나는 내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말했다.”

“이 모든 개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너희는 내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라. 너희를 부르는 이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이기심이 없는 마음 즉, 자아포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아포기는 내맡김에 기초한다. 내맡길수록 영혼은 신성한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된다.”

“신성한 사랑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소용돌이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너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다. 또 너희는 양심조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곳으로 오너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단시일 내에 받게 될 것인데, 이 성지를 방문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이곳을 방문한 후 며칠 뒤에 받을 수도 있다.”

“이 선교사업 전체는 하나된 우리 성심의 승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승리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다음 온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진실조차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내 자매인 너는 이것을 전파해야만 한다. 너의 노력을 축복한다.”(1999년 3월 31일)

발간색과 하얀색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박혔다 부활한 예수다. 알렐루야!”

“아이야, 꽃이 피기 전에 봄비가 내리듯, 내 승리의 재림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특정한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네가 비 오는 날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꽃이 피고 맑은 날씨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승리의 재림에도 너의 믿음과 희망을 두어라.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신성한 사랑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

들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이 마지막 전투의 시기에 강해져야만 한다.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고 오해할 때 나 역시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모든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나에게 봉헌될 때 힘이 된다. 가장 잔인한 행위나 가장 중대한 죄는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자신에게만 중심을 두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세상과 그들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게 함으로써 영혼을 거룩함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 네게 와서 이 선교사업을 맡기는 것이다.”

“...단순함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라.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 하여라.”

예수님께서 저를 강복하시고 떠나셨습니다.(1999년 4월 6일)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알렐루야!”

“아이야, 인류에게 아무리 가치가 큰 업적이라 해도 거룩한 사랑으로 행한 아주 작은 노력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도록 돕기 위해 왔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며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소명에는 사리사욕이 없다. 이것이 내가 구하는 응답이다.”

“신성한 사랑은 디저트 위에 얹는 생크림(whipped cream)과도 같다.”

예수님께서 이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크게 미소 지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생크림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하나 하나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모든 행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영혼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그 사랑은, 형제들을 위해 많은 곳에 일하러 돌아다니느라 얇게 얹아 버렸지만 새 것보다 훨씬 더 편한 낡은 샌들과도 같다. 거룩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꾸준히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신성한 사랑은 영혼 속에서 큰 소리없이 거룩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때에 영혼은 나와 일치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되며, 나를 택하게 된다.

내 성심은 거룩한 이들의 안식처이며, 인류를 에워싸기를 갈망하는 불꽃이다. 이 일치의 보화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거룩한 사랑을 통한 길뿐이다.”(1999년 4월 7일)

빨간색과 흰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십니다. “나는 사랑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오늘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너희를 돕기 위해 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말한다. 영혼은 세상의 것들 (돈, 권력)만을 신뢰하게 되어 자연히 나에 대한 신뢰로부터 멀어진다. 내가 인류에게 세상을 준 것은 그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류는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거짓 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적인 사랑이다. 거짓 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 호감을 사기 위하여 -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남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사랑이나 겸손, 온유함을 행한다면, 그는 바로 거짓 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덕은 너희 마음속에 거룩함을 쌓으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함 속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의 깊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너희의 거룩함의 여정은 너희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심판 받을 때 그것은 오직 너희와 나 사이의 일일 뿐 너희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의견은 중요치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보는 것들에 대해 너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은 천국에 고정시키고 마음은 거룩한 사랑에 깊이 잠겨 살아야만 한다. 나는 이 길 외에 다른 어떤 길로도 너희를 초대하지 않는다.”(1999년 4월 10일)

예수님께서 빨간색과 흰색 옷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구세주이자 왕인 예수다. 나는 너와 함께 내 부활 축제에 이은 오

늘 이 시간을 축하하고자 왔다. 너희의 구원은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순종을 통해 너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순종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순종을 이해해야 한다. 불순종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은 자신의 의견을 하느님의 의견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의 의견이나 하느님께서 자기 위에 세워주신 장상의 의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법은 모든 계명을 다 합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법에 도전하는 것은 비록 마음에 품었을 뿐일지라도 불순종이다. 이것은 산아 제한이나 여성 사제, 결혼한 사제, 혼인 무효 선언, 죄의 용서와 성체 안의 내 실재적 현존 등 교회의 모든 교리와 판정을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혼란이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분별이라는 미명 하에 판단을 하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발현들에 대해서까지도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있다고 판별되기 전일지라도 이런 발현 장소에 가는 것은 교회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순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너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윗사람에게 순명할 때, 너희는 항상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순명은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자아포기라는 미풍을 따라 움직이는 배의 돛과도 같다. 혹은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어디든 가는 발에 신겨진 신발과도 같다. 순명은 피난처이며 은총의 망토다. 이것은 영혼이 지닌 겸손의 그림자다. 교만한 자들은 순명하기가 힘들다.”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덕과 다른 모든 덕들을 쌓도록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1999년 4월 14일)

"**나**는 오늘 사람이 된 예수로서 너희에게 왔다. 오늘은 너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자 한다. 기도는 피난처이고 무기이며, 피조물이 창조주와 일치하는 수단이다. 영혼이 그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내맡길수록,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계획과 선택과 갈망을 내맡겨라. 하느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유익한 것도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 내맡김 안에서 너희는 모든 덕 - 믿음, 희망, 사랑, 겸손, 단순함, 온유함, 신뢰 - 이 작용한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다. 마음으로, 입으로 또는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는 행동을 통하여 나누는 하느님과 대화다.”

“내 어머니께서는 너희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 너희와 함께 기도하신다. 어머니의 성심은 너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은총이 너희에게 다시 내려오는 통로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심은 마치 전구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에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은 너희의 기도의 희생을 악을 쳐 이기는 칼로 사용하신다. 그분은 너희의 기도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무찌르는 은총으로 바꾸신다. 그러니 보아라.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 애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너희의 마음을 교란시켜 너희의 의지를 내맡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자신만을 신뢰하는 영혼은 길을 잃을 것이다.”

“기도를 햇살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햇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백합과 꽃을 길러내고 고귀한 빛으로 옷을 입힌다. 그렇게 아름답게 차려 입히고 활짝 꽃 피워서, 그 아름다움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많이 내맡기는 영혼 역시, 하느님 눈에 아름답게 되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나의 충실한 친구야, 내가 말했듯이, 기도는 내맡김이고 희생이다. 그러나 영혼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작은 꽃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는다. 영혼은 기도를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것을 받는다. 겸손으로 그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께서 작은 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 있겠느냐? 작은 꽃이 햇빛 속에서 춤추듯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것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여라.”

“기도는 어떤 것이든 나를 흐뭇하게 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다. 이런 기도는 사람과 사건들을 변화시킨다. 너희 예수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미사의 기도이고, 그 다음이 묵주기도다.”

“기도 안에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1999년 4월 2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오늘 나는 기도의 덕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햇살이 꽃봉오리를 틔우고 꽃을 만개시키듯이 기도를 하라는 모든 영감은 내 신성한 사랑이 주는 기도로의 초대이자 부름이다. 흔히 내 초대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른 어떤 선행보다도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네 주변 세상을 둘러보아라. 기도가 거부된 곳은 모두 악이 장악하였다. 원수는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분열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도가 금지된 학교에는 이제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기도 대신 낙태를 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기도가 그 중심인 이곳에서까지도 어떤 이들은 너희를 두려워하며, 또 어떤 이들은 너희를 결눈질로 보기도 한다. 이곳에 자주 오고, 기도의 노력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들의 인내와 용기에 대해서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모든 기도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선과 악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가장 가치가 있다. 이런 기도는 영혼들을 일치시키고 회심시키며, 사람들과 사건들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며 완전하게 만든다.”

“기도의 삶은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의 사명이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의 부름이다.”(1999년 4월 27일)

“**나**는 말씀이 사람이 된 예수다. 애야, 나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서로간의 사랑을 네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거룩한 사

랑의 계명은 주님이신 하느님을 너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신성한 뜻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며, 거룩함과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방해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 장소 등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애착’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은 애착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사탄은 너희 마음을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 사탄은 너희가 외모나 평판,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살고 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의 마음이 심적 갈등을 겪게 만들며, 너희의 의견을 절대로 굽히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독선의 올라미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런 애착은 너희를 ‘판단’이라는 올라미에 빠지도록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는 정 반대의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도록 만든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나에게 올 때, 너희 본성이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애착의 한 종류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쉽게 내맡길 수 있고 나를 쉽게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통하여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내 은총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애착은 사탄의 도구로서,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그자가 쓰는 수법이다. 너희가 내게 청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가 모든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꼭 원해야만 한다. 완전히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해방시켜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1999년 5월 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실에 묶여 있는 풍선을 생각해보자. 실은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서 풍선을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인간의 뜻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은 많은 애착에 묶여 있다. 실이 끊어지면 풍선은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날아가 버린다. 이처럼, 나는 인간의 마음도 물건이나 사람, 장소 등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떨어지기를 바란다. 애착을 버리고, 묶여 있는 끈을 끊어버릴 때 영혼은 천국으로 날아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뜻은 사라지고 영혼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일치될 이루게 된다.”

“내가 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너에게 와서 이것을 말해주는지 아느냐? 왜냐 하면 신성한 뜻과 하나되는 것은 높고 넓고 깊은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신성한 사랑인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과의 합일이다. 개개인의 영혼이 내 앞에서 온전히 발가벗은 채로 서서 심판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 각자가 세상이 아닌 하느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확히 바로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의 인거나 외모나 재산이나 권력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신성한 뜻은 너희가 매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피난처이자 구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니, 너희도 이를 선택하여라.” (1999년 5월 8일)

“**나**는 사람이 된 신성한 사랑이며, 너희의 예수다. 나는 너희에게 내 부름에 대한 완성 즉, ‘자아포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 너희가 자신을 나에게 내맡기지 않으면, 나는 너희 안에서 내 목적과 너희 구원을 달성할 수 없다. 내맡김이란 너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포기는 너희의 의지를 포기하라는 내 부름이다. 매 현 순간 너희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가 너희 의지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자아포기에 대한 내 초대에는 동시에 현 순간 거룩한 사랑에 완전히 순응하라는 내 부름이기도 하다.”

“자아포기는 내 성심과 하느님의 섭리의 문을 여는 열쇠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것은 너희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너희 영혼에 해로워서,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너희를 위한 내 신성한 뜻, 내 안배는 커다란 태피스트리*와도 같아서, 직조 중인 나는 너희가 잉태되던 순간부터 작품을 짜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의 온 생애에 걸쳐 너희의 구원이라는 걸작을 만들고자 한 가닥 한 가닥 실을 엮어가며 작품을 짜왔다. 너희가 나에게 내맡기기를 거부할 때, 너희는 그 실을 풀

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도록 태피스트리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내맡길 때는 최종 목표를 훨씬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내맡길 때, 너희는 내 은총을 알고 내 안배, 내 계획에 협조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계획한 최상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더욱 아름답다.”

“자아포기는 너희를 거룩함의 계단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든다. 나에게 대한 너희의 내맡김은 너희가 내 은총의 꽃다발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준다. 나에게 내맡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마치 노련한 목수의 손에 들린 부러진 연장과도 같다. 목수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도구는 옆으로 밀쳐놓고 더 좋은 것을 찾는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내맡기기 전에는 나도 너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자신을 내맡길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안내하며, 너희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하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내게 말하는 것이 된다. 나는 이런 영혼을 거부할 수가 없다. 내 사랑은 이런 영혼을 완전히 감싸 안아 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가 모든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다. 결국 너희의 신뢰는 바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태피스트리(tapestry)는 다채로운 색상의 염색한 실로 그림을 짜서 만드는 섬유공예품으로, 주로 벽걸이나 가리개, 휘장 같은 실내장식용으로 쓰인다.(편집자주) (1999년 5월 22일)

“**나**가 (모린) 경당에 도착했을 때, 성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모든 영혼의 주권자다. 이제 세상은 사탄이 그의 목적을 이루려고 어떻게 사람들 마음 속에서 일해 왔는지를 깨닫고 있다. 더 이상 군비 확장 경쟁은 없다. 모두가 동일해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가 해결책이며 목주가 선택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그리스도적 규범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나라들에 슬그머니 파고들어 이들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

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 어디서 말을 하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늘 강조해야 한다. 내 백성들에게 비록 아주 조금만 기도한다고 해도 꼭 기도를 바치도록 권하여라.”

“평화의 길은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는 길이다.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은 거룩한 사랑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내게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덜 깨우친’ 영혼들에 비해 자신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듯,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내 어머니의 성심의 은총이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뜻이기에, 나에게 오는 길은 이 티 없으신 성심의 길뿐이다. 나에게 기도하는 모든 이는 내 어머니의 초대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인류를 향한 내 부름은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파괴시켜 모든 영혼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사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1999년 5월 27일)

성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나는 오늘 또다시 너희에게 ‘자아포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왔다. 작은 씨앗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리라는 희망으로 땅에 심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분께서는 내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에 미소 지으십니다.

“주변 환경이 적합하면 씨앗은 변화를 거쳐 싹을 틔운다. 그리고 땅을 밀고 나와 꽃을 피울 것이다. 씨앗에게는 이렇게 되는 데 방해가 되는 자유의지란 것이 없다.”

“이제 영혼을 생각해보자. 영혼을 둘러싼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리는 선택이다. 그 선택들을 나에게 내맡기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자유의지가 움직여야만 한다. 이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언

제나 영혼을 위해 바라는 것 곧, 그의 성화와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각 영혼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나와 일치하기 위해 창조된 이유다. 이것이 내 어머니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어머니께서는 모든 영혼과 모든 민족과 실로 모든 나라가 이것을 알기를 바라신다.”

“나는 이 길이 순탄한 길이라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사탄과 육신과 세상이 이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당장의 만족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내말김이 감미롭고 좋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말김은 사랑 그 자체이며 평화이자 기쁨이다. 이런 영혼들은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난다. 이것을 전파하여라.”(1999년 5월 29일)

“**나**는 신성한 사랑이며 신성한 자비인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어머니께서 너희에게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로서 오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내 지극히 신성한 성심, 신성한 사랑의 왕국을 준다. 이 왕국은 영토에 대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 안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절정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의 목표다.”

“신성한 사랑의 왕국은 모든 영혼에게 그들의 주님이자 구세주와 결합하는 왕좌에 앉히고자 한다. 모든 영혼은 이것을 위하여 선택되었고 창조되었다. 이 왕국의 제왕의 의관은 영혼을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화, 참으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올린다.”

“내 왕국은 오늘 이것을 허락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너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오늘 너희 마음으로부터 들어올려, 내 자비의 대기 속에서 증발되는 한 방울의 물처럼 사라지게 하라. 내 왕국은 영원하며,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에 한계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끝도 경계도 없다.”

“내 부름의 이 호소는 오직 너희가 그것을 선택할 때만 너희에게 다가온다. 참으로 이렇게,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왕국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1999

년 6월 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인류와 화해하고자 왔다. 화해의 길은 거룩한 사랑의 길이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 즉, 내 어머니 성심의 불꽃에 내맡길 때 사실 그는 평화에 내맡기는 것이다. 내가 모든 덕에 대해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해도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덕들에 내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덕을 감싸고 그 덕들을 구체화시킨다.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너희는 더욱 덕이 깊어지게 되고 나와 아버지의 뜻에 더욱 깊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너희들의 거룩함의 여정은 바로 너희에게 달려 있다. 신성하고 거룩한 사랑에의 내맡김은 곧 자유다. 그렇기에 너희의 마음은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게 되며, 이 모든 세상사를 거룩한 신뢰를 통해 내게 내맡기게 된다.” (1999년 6월 15일)

“**이**것을 받아쓰면서 시작하기로 하자.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거룩한 사랑이 세속적인 순간들을 성화시키고, 하느님 눈에 가치있게 만들듯이, 너희가 현순간 거룩한 사랑의 불꽃 안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하여 더 많은 은총을 너희의 매래의 모든 순간에 부여주겠다. 너희가 현재에 덕행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미래에 성덕을 더 쉽게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순간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노력을 사탄이 꺾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마귀는 매 현순간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현순간 너희가 기도해야 하고, 너희 마음을 나의 사랑과 자비에 내맡겨야 되는 이유다. 사탄은 거룩한 사랑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 한다. 그는 거룩한 사랑이 내 어머니의 성심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삶 속에서 큰 은총과 많은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너희 마음을 지금 내게로 돌려라.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

리겠다.”

“너희를 축복한다. 이것을 전파하여라.”(1999년 6월 25일)

성심을 드러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망덕에 대해서 말하겠다. 희망은 믿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희망은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도 같다. 그는 바다에 고기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던진다. 그가 만약 마음 속에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던진다면, 그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그의 고기잡이를 축복해 주시리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느님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항상 실망할 것이다. 거룩한 희망은 너희가 하느님의 안배와 너희를 위한 그분의 신성한 뜻을 신뢰하게 만든다. 거룩한 희망은 하느님께 내맡기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며, 자아를 포기하게 한다. 거룩한 희망은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게 한다.”

“거룩한 희망은 곡식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큰 창고를 세우는 농부와도 같다. 너희가 희생하고 고통받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 천상에 보화를 쌓아올리는 것이기에, 너희는 희망에 찬다.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역시 나를 신뢰한다. 희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과 그 이외의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신뢰할 수 없다. 너희가 신뢰하지 않으면 희망할 수 없다. 거룩한 사랑에 뿌리를 내린 마음에서 모든 덕이 꽃을 피운다. 이것을 전파하여라.” (1999년 6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아이야, 나는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내 어머니의 초대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네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양과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함의 깊이 즉, 덕의 깊이가 결정된다. 이기적인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 안에는 덕이 차지할 자리가 거의 없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는 정도에

따라 거룩함과 덕의 깊이가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위대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많은 기도를 바치고 많은 성지와 거룩한 장소 들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들은 특정한 은총을 받기 원하고,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나 순례가 하느님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공로를 거의 쌓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청원들로 가득 넘치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안다. 너희는 종종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을 청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일치하고 싶다고 청하여라. 이렇게 할 때, 나는 너희에게 지극한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니, 나를 신뢰하여라.”

“아멘.” 그분께서 떠나셨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아**이야, 나는 사람이 된 자비와 사랑의 예수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고 지성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왔다. 사랑의 의미는 이렇다. 사랑은 우선 너희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주변 세상에도 사랑이 있게 된다. 거룩한 사랑이 네 마음 속에 있다면 너는 네 뜻을 나에게 내맡기게 된다. 네가 이렇게 할 때에만 내가 너를 은총과 성덕으로 채울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네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덕을 흉내내거나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는 거룩해지고 덕망을 갖추고 싶겠지만, 이런 은총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직 자아포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1999년 7월 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너희 각자의 마음을 작은 집에 비유해 보겠다. 집의 문은 자유의지다. 그 집의 소유자는 선이나 악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 집의 소유자가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그의 주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

“만약 그 집이 성덕의 거주지이며 거룩한 집이라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과 회반죽은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성덕은 다른 덕목들을 감싸서 하나로 통합하여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사랑과 겸손 없이는 다른 성덕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 즉, 그것들을 그곳에 붙들어 줄 구조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벽돌과 회반죽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덕이 마음을 뒤덮어 버리게 된다.”

“그렇기에 모든 현 순간의 가치를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에 따라 측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내맡기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1999년 7월 10일)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나의 형제 자매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낙태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이 죄는 마음에서 흘러나와 이 세상에 쏟아지는 이기적인 사랑으로서, 이기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표징이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두어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가 지녔으면 하는 성덕과 은총들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너희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나의 성덕과 은총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

하나된 성심의 축복이 내렸습니다. (1999년 7월 11일)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현 순간에 나를 신뢰하고 거룩한 사랑 속에 사는 것이 왜 좋은지 말해 주겠다. 네가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은 은총을 현재와 미래의 네 마음에 쏟아부어 줄 것이다.”

“마치 내 신성한 자비와 신성한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한 너의 신뢰와 사랑도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네 자유의지를 조종하는 것

은 바로 네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너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네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나의 은총을 기다릴 것이다.”

“현 순간마다 네게 주는 은총에는 너의 구원과 거룩함, 성화 등을 위해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신뢰와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내 은총을 구하면 구할수록 너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현 순간에 나를 신뢰하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듣기에는 얼마나 쉬우냐! 그러나 이것에 내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현 순간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내맡기는 정도가 개개인의 영혼이 현순간 바치는 모든 기도와 희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너희의 희생이라는 것이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역경을 견뎌내는 일 한 가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으로 신뢰하면서 침묵 속에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은 얼마나 값진 선택이며 얼마나 귀한 희생이냐!” (1999년 7월 15일)

“**너** 무나도 사랑스런 내 아이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네가 현 순간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매 순간 그리고 현 순간마다 영웅적인 행위와 경건한 활동을 하라고 네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는 단지 네가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창조주와 일치하는 길이다. 인간은 이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나는 오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에 대한 약속으로 갱신시키고자 왔다.”

“이제 성모송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모송을 한 번 암송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회개시키고 전쟁을 멈추게 하며, 연옥 영혼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러니 네가 기도할 때 네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그 기도의 힘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바친 엄청난 희생보다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남모르게 바친 작은 희생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

“비록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바친다 해도 그것을 마지못해 바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너무 드러내며 바친다면, 나는 그런 희생보다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조용히 바치는 성모송 한 번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 바란다. 나에게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나에게 주든 항상 사랑으로만 해다오. 이것이 바로 네가 훨씬 더 많은 선을 이루고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널리 알려라.” (1999년 7월 1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자매야,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겠다. 믿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바위와도 같다. 또한 이것은 집의 형체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못과도 같다. 기도를 바칠 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믿음을 재는 척도는 마치 오븐의 온도와도 같다. 오븐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빵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구워지듯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도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응답 받는다.”

“믿음은 큰 보석을 달고 있는 금반지와도 같다. 보석을 보호하고 그 광채를 세상에 드러내는 금은 너희의 믿음이며, 보석은 너희의 구원이다. 믿음은 인내로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가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는 길이다.”

“믿음이 없을 때 너희는 거친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연을 날려주는 부드러운 봄바람과 같은 것이다. 만약 미풍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연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내 성심에 믿음을 달라고 청하여라. 항상 더 깊은 믿음을 청하여라. 믿음은 사랑과 같아서 아무리 받아도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1999년 7월 2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자비로운 구세주로서 너희에게 왔다. 나는 형제자매인 너희의 약점을 보강해주러 왔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의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낙담하지 마라. 이 넘어짐은 우리가 짊고 넘어가야 할 너희의 약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내 자비를 신뢰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면, 너희도 당연히 너희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다. 너희는 원죄로 인해 그 누구도 완전한 거룩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의 넘어짐 안에는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일어나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은총이 들어 있음을 보아라. 너희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어머니께 청하여라. 그러면 어머니께서 너희가 그 넘어짐에서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넘어짐은 각각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남을 비판적으로 대하지는 마라. 나는 너희의 약점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또한 용서한다. 세상에서 너희 주변에 내 자비의 표징이 되어 다오. 그리고 나만이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해다오.”

“너희의 이런 노력을 축복하겠다.” (1999년 8월 28일)

거룩한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의 비교

이기적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추구한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잘못만 본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긴다. 심지어 겸손하고 덕이 높다고까지 생각한다.	스스로를 너무나도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항상 사랑을 통해 완전해지기를 추구한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겸손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마음 속으로 자신에게 저지른 다른 이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전력을 다하여 신성한 자비를 닦으려 하며, 동정하고 용서를 베푼다.
쉽게 분노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까 노심초사한다.	참을성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근심에 주목한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남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
자신의 업적에 자부심을 갖는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한다.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어떤 선하고 좋은 일도 하느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은 은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한 쾌락을 얻는다.	천상에 보화를 축적하는 일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더 깊이 성화되는 일에서 기쁨을 얻는다. 속세의 쾌락과 영적 즐거움의 차이를 안다.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 것들을 사용한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 것들을 사용한다.
모든 십자가에 저항한다. 시련을 저주라 여긴다. 다른 이들의 복을 원망한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통해 십자가에 내맡긴다. 십자가를 타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은총이라고 여긴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기도한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시련에 대해 분개하며 모진 마음을 품는다.	역경 중에도 하느님의 뜻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복되신 어머니, 1997년 8월 18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440) 327-8006

한국어: (440) 657-0113

www.HolyLoveKorean.com

HolyLoveKorean@gmail.com